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4월 3일(월) 총 3매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담당자 • 에너지신사업팀장 • 담당자	김일웅 ☎440-4301 박혜윤 ☎440-4306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산업부 수소 버스 보급사업에 전국 최대인 130대 선정
- 저상버스 100대, 고상버스 30대 연료전지시스템 교체 비용 지원받게 돼 -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민간부문에서 수소 고상버스가 도입된 인천시가 수소버스 보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 지원 시범사업」에서 전국 시·도 중 최대인 130대의 수소 버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 버스 보급 의지가 높은 지자체를 선정해 총 400대(저상버스 300대, 고상버스 100대)의 수소 버스 연료전지시스템*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소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장치,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 역할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성한 컨소시엄*의 수소 생산, 충전 인프라, 버스 보급 일정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됐으며, 인천시는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과 의지가 높게 평가받았다.

그 결과 시는 시범사업을 신청한 전국 8개 시·도 중 가장 많은 130대의 수소 버스(저상100, 고상30)가 선정돼 산업부로부터 대당 7천만 원씩 지원받게 됐다.

*광역·기초 지자체, 수소 공급사, 수소충전소 사업자, 버스 운수사 등

특히, 시스템 교체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5년 50만km이던 수소 버스의 보증기간이 올해부터 9년 90만km로 연장돼 수소 버스 초기 보급 단계에서 발생하는 고장과 정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관내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 7대, 광역버스 3대, 통근·셔틀버스 11대 등의 수소 버스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대비 소음과 진동이 적고, 승차감도 훨씬 좋아 운전기사와 탑승자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2월 인천 액화수소포럼을 개최하고 수소 버스 선도 도시 조성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내 수소 모빌리티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수소충전소를 현재 7개소에서 올해 14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박광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수소 공급사와 충전소, 운수사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 참고 사진 : 지난 2.22일 국내 최초로 도입된 수소 고상버스 >